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국내 지식기반서비스업의 특징과 과제

목 차

■ 국내 지식기반서비스업의 특징과 과제

Executive Summary	i
1.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의미	1
2. 국내 지식기반서비스업의 특징	2
3. 시사점	11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백 흥 기 이 사 대 우 (2072-6228, hkback@hri.co.kr)

산업컨설팅실 : 임 희 정 연 구 위 원 (2072-6218, limhj9@hri.co.kr)

Executive Summary

□ 국내 지식기반서비스업의 특징과 과제

■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의미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지식이 체화된 중간재를 생산 활동에 집약적으로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보·통신, 금융, 교육, 문화산업 등을 말한다. 국내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성장잠재력이 크고 양질의 고용창출 가능성이 높은 데다 제조업 등 여타 산업과의 연관관계가 긴밀하다. 실제 국내 지식기반서비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25.1%에서 2014년 29.3%로, 취업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27.6%에서 2014년 35.0%로 높아지는 등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내 지식기반서비스업의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경쟁력 제고 및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국내 지식기반서비스업의 특징

첫째, 국내 지식기반서비스업은 고용유발력 및 고용탄력성이 높아 고용창출에 기여한다. 국내 취업자 수에서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35%(2014년)를 기록했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고용유발계수(명/10억원)는 2013년 15.3으로 제조업 6.0대비 매우 높다. 또한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고용탄력성은 2010~2014년 0.8로 제조업 0.5 대비 높은 수준으로 특히 경기 하강기에 고용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둘째, 생산변동성이 작아 경기 변동 폭 축소에 기여하고 있으나 노동생산성은 낮은 편이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생산 변동성(매출액 증감률의 표준편차)이 2007~2009년 5.0%p에서 2011~2014년 1.3%p로 전통서비스업(5.1%p⇒3.4%p) 대비 낮아 경기 변동 폭 축소에 기여하고 있다. 다만 노동생산성은 교육서비스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하락 추세이다.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국내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독일과 프랑스 대비 50%(2013년) 수준이다.

셋째, 국내 수요기반은 비교적 견실하나 수출경쟁력은 취약하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소득탄력성은 2004~2008년 -0.01에서 2010~2014년 0.31로 금융위기 이후 전통서비스업(0.54⇒0.10)과 제조업(-0.15⇒0.19)에 비해 높다. 또한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4~2008년 22.6%에서 2010~2014년 23.8%로 확대되었다. 다만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보험, 금융, 정보통신, 그리고 지식재산권사용료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의 현시비교우위지수는 2006~2010년과 2010~2014년 기간 중 모두 1보다 낮아 비교 열위상태를 지속했다.

넷째, 경제성장 기여율은 낮은 편이고 기업규모도 영세하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의 GDP성장률은 2004~2008년 4.7%에서 2010~2014년 3.3%로 제조업(7.1%⇒5.9%) 대비 낮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의 GDP성장률 기여율은 2004~2008년 26.7%에서 2010~2014년 24.3%로 하락했다. 사업체당 종업원 수는 2007~2009년 12.5명에서 2011~2014년 11.9명으로 줄었고 제조업(41.6명⇒42.8명) 대비해서도 적다. 종업원 1인당 매출액 규모는 2007~2009년 7,130만원에서 2011~2014년 8,370만원으로 증가했으나 역시 제조업(4억 2,940만원⇒5억 3,540만원) 대비 작은 수준이다

다섯째, 중간재 산업으로의 역할이 미흡하다. 총 중간투입액에 대한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중간투입률 비중이 하락하며 제조업에 비해 여전히 낮다. 총 중간투입액에 대한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중간투입률 비중이 2005년 19.1%에서 2013년 12.8%로 하락했다. 제조업 투입률은 2005년 56.3%, 2013년 57.0%를 기록했다.

여섯째,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적인 규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전체 서비스산업 규제 중 지식기반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는 57.5%에 달한다. 참고로 공통규제를 제외할 경우, 제조업에만 적용되는 규제는 338개, 서비스산업은 3,601개로 서비스산업 규제가 제조업의 10배가 넘는다. 특히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등록규제 중 진입관련 규제는 451개로 제조업 전체 규제 수보다도 많다.

■ 시사점

첫째,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고용창출력을 더욱 키워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지식기반서비스업 분야의 일자리 및 투자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둘째,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 디자인·설계, 마케팅 등 유망 지식기반서비스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자금 및 조세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수요기반 확충 및 수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시장 개방을 통해 국내산업의 효율성 향상 및 선진화를 촉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넷째, 영세한 기업규모에 대응하여 전문화·대형화 추진이 필요하다.** 취업자 수가 많은 지식기반서비스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전산업 생산에서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중간재 산업 역할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신업종 등장 등 지식기반서비스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산업변화를 반영한 통계DB 구축 및 인프라 확충을 해야 한다. **여섯째,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세부업종별 진입규제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규제비율이 높은 업종에 대한 우선적인 규제완화 노력이 필요하다.

1.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의미

○ 국내 지식기반서비스업은 GDP 및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

-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성장잠재력이 크고 양질의 고용창출 가능성이 높는데다 제조업 등 여타산업과의 연관관계가 긴밀함
 -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지식이 체화된 중간재를 생산 활동에 집약적으로 활용하여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임
- 국내 GDP에서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근접함
 - 국내 GDP에서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25.1%에서 2014년 29.3%로 커졌음
 -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58.5%에서 2014년 59.4%로 상승함
- 국내 취업자 수에서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35%에 달함
 - 국내 취업자 수에서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27.6%에서 2014년 35.0%로 지속적으로 상승함

○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동향 및 특징을 살펴보고 지식기반서비스업의 향후 경쟁력 제고 및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방안을 유도하고자 함

<국내 지식기반서비스업 현황>

구분	총부가가치 대비 비중(%)		고용 비중 (%)		1인당 부가가치 (백만원)		
	2004	2014	2004	2014	2004	2014	
서비스업 전체	58.5	59.4	64.1	69.2	37.1	42.5	
지식 기반 서비스	정보·통신	4.6	3.8	2.7	2.8	60.5	76.2
	사업서비스	5.8	7.4	5.7	8.6	40.4	41.2
서비스	보건·사회복지	3.0	4.2	2.6	6.6	51.3	32.5
	금융·보험	6.3	5.6	3.3	3.3	71.4	99.2
	교육	5.4	5.5	6.8	7.1	36.5	36.1
	문화·기타	2.6	2.8	6.5	6.6	16.7	19.8

자료 : 한국은행(국민소득, 기업경영분석); 금융감독원, 통계청, 고용노동부.

주 : 1인당 부가가치는 실질GDP를 취업자수로 나눈 수치임.

2. 국내 지식기반서비스업의 특징

○ **국내 지식기반서비스업의 특징을 고용창출력, 생산 및 노동생산성, 수요기반과 수출경쟁력, 성장성과 기업규모, 규제여부 등 총 6가지 측면에서 살펴봄**

- **고용창출력, 생산변동성 및 노동생산성을 측정하고자 함**
 - 고용창출력은 취업자수 증가율, 고용유발계수, 고용탄력성을 측정
 - 생산 및 노동생산성은 생산 증감률의 표준편차,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점검
- **성장성과 기업규모, 중간재 산업의 역할, 규제여부를 측정**
 - 성장성과 기업규모는 국내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국내 실질 GDP 성장률과 GDP성장률 기여도, 기업규모의 영세성 여부를 점검
 - 중간재 산업의 역할은 중간재 투입비중, 부가가치유발계수를 측정
 - 규제여부는 지식기반서비스업에 대한 규제 정도를 측정

<국내 지식기반서비스업 특징의 판단 지표>

구분	분석 지표
고용창출력	취업자수 증감률, 고용유발계수, 고용탄력성
생산변동성 및 노동생산성	생산 증감률의 표준편차, 노동생산성 증가율
수요기반과 수출경쟁력	가계소비 지출 중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비중,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수출의 세계시장 점유율
성장성과 기업규모	국내 실질 GDP 성장률, GDP 성장률 기여도, 지식기반서비스업체의 기업 규모의 영세성 여부
중간재 산업 역할	중간 투입률
규제 여부	지식기반서비스업에 대한 규제 정도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생산성본부.

① 고용유발력과 고용탄력성이 높아 고용창출에 기여

○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취업자 비중이 크고 고용유발계수도 높은 수준

- 국내 취업자 수에서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35%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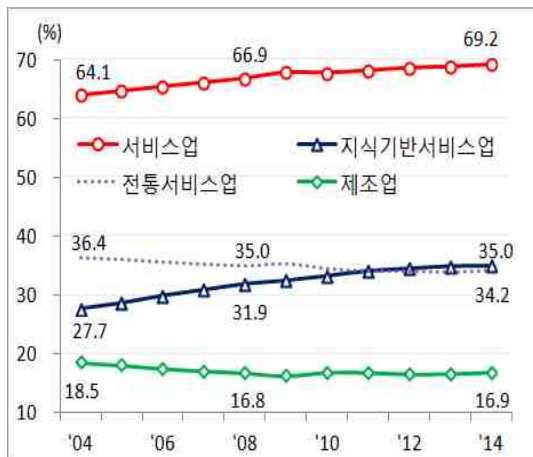
· 국내 취업자 수에서 전통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36.4%, 2008년 35.0%에서 2014년 34.2%로 점진적으로 하락

-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고용유발계수는 제조업 대비 높은 수준임

·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고용유발계수(명/10억원, 2000년 14.8⇒2005년 12.3⇒2010년 10.9⇒2013년 15.3)가 제조업(2000년 9.7⇒2005년 8.8⇒2010년 6.7⇒2013년 6.0)보다 높음¹⁾

·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감률은 2004~2008년 5.1%에서 2010~2014년 3.1%로 제조업(-1.3%⇒1.8%)과 전통서비스업(1.1%⇒1.2%) 대비 높은 수준임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취업자 비중 추이>



자료 : 통계청 자료 이용하여 HRI 재구성.
주 : 서비스업과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전통서비스업 비중은 취업자 수 대비 비중임.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감률 추이>

구분	취업자 증감률(%)	
	'04~'08	'10~'14
전산업	1.1	1.8
서비스업	2.2	2.3
지식기반서비스업	5.1	3.1
정보·통신	0.9	1.7
사업서비스	7.4	3.7
보건·사회복지	9.3	10.1
금융·보험	2.7	0.9
교육	3.7	0.1
문화·기타	4.0	1.5
전통서비스업	1.1	1.2
제조업	-1.3	1.8

자료 : 통계청 자료 이용하여 HRI 추산.

1)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가 2000년 19.0에서 2013년 19.3으로 제조업(2000 14.4⇒2013년 8.6)보다 높음.

-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고용탄력성은 제조업 대비 높은 수준이고 특히 경기 하강기에 고용 안정화에 기여함
 -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고용탄력성은 2004~2008년 1.0에서 2010~2014년 0.8로 제조업(-0.2⇒0.5)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경기 하강기에 고용 안정화에 기여
 -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감률이 2004~2008년 5.1%에서 2010~2014년 3.1%로 다소 하락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고용탄력성 추이>

구분	전산업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전통서비스업	제조업
			정보·통신	사업시설·지원	보건·사회	금융·보험	교육	문화·기타			
'04~'08	0.2	0.5	1.0	0.2	0.9	1.6	0.4	1.1	0.8	0.2	-0.2
'10~'14	0.6	0.8	0.8	0.3	0.9	1.8	0.2	0.3	1.0	0.8	0.5

자료 : 통계청 자료 이용하여 HRI 추산.

주 : 고용탄력성은 산업별 취업자 증감률/산업별 GDP 성장률.

② 생산변동성이 작으나 노동생산성은 낮은 편

○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생산 변동성이 작아 경기 변동 축소에 기여하나 노동생산성이 낮음

-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생산 변동성이 전통서비스업 대비 작기 때문에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제적 비중 증가가 경기 변동 폭 축소에 기여함
 -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생산변동성(매출액 증감률의 표준편차)이 2007~2009년 5.0%p에서 2011~2014년 1.3%p로 전통서비스업(5.1%p⇒3.4%p)에 비해 낮음
 - 사업시설 및 지원, 보건·사회 부문은 생산변동성이 2007~2009년 7.7%p와 8.2%p에서 2011~2014년 0.8%p와 0.7%p로 변동성이 축소됨
 - 한편, 제조업의 생산변동성은 2007~2009년 12.0%p에서 2011~2014년 1.1로 크게 작아졌음

<지식기반서비스업 생산의 변동성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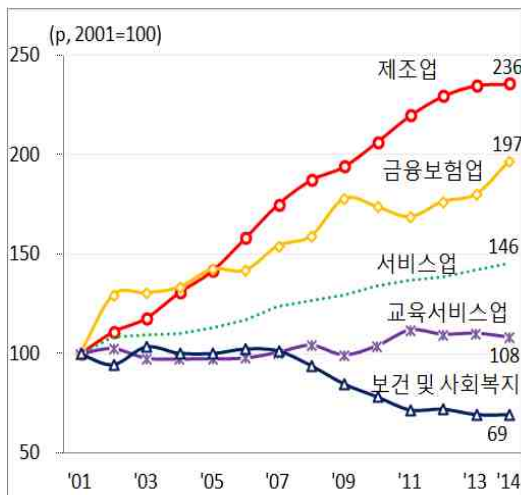
구분	서비스업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전통서비스업	
		정보·통신	사업시설·지원	보건·사회	금융·보험	교육	문화·기타			
'07~'09	7.9	5.0	1.1	7.7	8.2	-	4.6	3.3	5.1	12.0
'11~'14	1.0	1.3	1.3	0.8	0.7	-	1.4	2.3	3.4	1.1

자료 : 통계청 자료 이용하여 HRI 추산.
 주 : 생산 변동성은 매출액 증감률의 표준편차임.

-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이 제조업 대비 저조하고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

- 국내 지식기반서비스업은 대부분 노동생산성이 하락. 교육서비스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최근 하락
- 한편, 금융보험업의 노동생산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국내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독일과 프랑스 대비 50% 수준임

<지식기반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추이>



자료 : 통계청 자료 이용하여 HRI 재구성.
 주 : 제조업, 서비스업과 업종별 노동생산성은 2001=100을 기준임.

<지식서비스업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구분	한국	독일	프랑스	
서비스업	22.5 (100)	45.0 (200.2)	47.3 (210.7)	
지식기반	정보통신	45.6 (100)	95.7 (209.8)	99.4 (217.8)
	금융보험	56.1 (100)	70.6 (125.7)	71.0 (126.4)
	전문과학	18.8 (100)	37.4 (198.8)	40.8 (216.8)
전통	음식숙박	13.2 (100)	31.7 (240.9)	35.4 (268.8)
	기타	8.8 (100)	32.3 (367.1)	27.8 (315.2)

자료 : 한국생산성본부.
 주 1) 2013년 구매력평가(PPP) 기준.
 2) ()안은 한국의 생산성 대비 지수임.

③ 국내 수요기반은 견실하나 수출경쟁력은 취약

○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소득탄력성이 전통서비스업보다 높고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수요기반의 견실한 요인으로 작용

-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소득탄력성은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과 전통서비스업보다 높아 소득이 증가할수록 그 소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큼

·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소득탄력성이 2004~2008년 -0.01에서 2010~2014년 0.31로 금융위기 이후 전통서비스업(0.54⇒0.10)과 제조업(-0.10⇒0.13)에 비해 높음

- 가계소비지출 중 지식기반서비스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식기반서비스업이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2008년 22.6%에서 2011~2014년 23.8%로 확대됨

<지식기반서비스업 소비의 소득탄력성>

구분	소득탄력성	
	'04~'08	'10~'14
전산업	0.59	0.22
서비스업	0.65	0.14
지식기반서비스업	-0.01	0.31
정보·통신	-1.39	-0.06
의료·보건	1.57	0.28
교육	-	-
오락·문화	-0.20	0.70
전통서비스업	0.54	0.10
제조업	-0.10	-0.13

자료 : 통계청 자료 이용하여 HRI 추산.

- 주 1) 소비의 소득탄력성은 산업별 소비 증감률/산업별 소득 증감률.
- 2) 전통서비스업은 음식숙박과 기타 상품업.
- 3) 교육서비스업은 자료 미비.

<국내 가계소비지출 중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비중>

구분	소비지출비중	
	'04~'08	'10~'14
전산업	100	100
서비스업	42.6	44.0
지식기반서비스업	22.6	23.8
통신	4.0	4.1
의료·보건	3.6	4.7
교육	7.3	6.3
오락·문화	7.7	8.8
전통서비스업	19.9	20.2
제조업	40.8	38.9

자료 : 통계청 자료 이용하여 HRI 추산.

- 주 1) 전통서비스업은 교통과 음식숙박업.
- 2) 제조업은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임료 및 수도광열.

○ 국내 지식서비스업의 수출경쟁력은 비교 열위 상태를 지속²⁾

- 지식기반서비스업 중 금융 서비스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최근 5년('10~'14년)간 경쟁력이 하락
 - 금융 서비스의 무역특화지수도 2006~2010년 평균 0.001에서 최근 5년('10~'14년)은 -0.002로 경쟁력이 하락
 - 또한, 한국은 서비스 무역 중 가공, 여행, 보험, 지식재산권 사용료, 기타사업 서비스의 무역특화지수가 2006년 이후 0보다 낮게 유지되면서 비교 열위가 지속
- 수출 경쟁력만을 따로 조사한 현시비교우위(RCA) 분석 결과도 보험과 금융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보험, 금융, 통신컴퓨터정보, 지식재산권사용료, 기타사업 및 정부 서비스 등 8개 수출 항목은 두 기간 모두 1보다 낮아 비교 열위가 지속

< 한국의 무역특화지수 변화 >

	'06~'10 평균	'10~'14 평균
가공	-0.019	-0.029
운송	0.033	0.036
여행	-0.067	-0.035
건설	0.057	0.065
보험	-0.003	-0.001
금융	0.001	-0.002
통신컴퓨터정보	-0.003	0.000
지식재산권 사용료	-0.024	-0.024
기타사업	-0.049	-0.057
개인문화여가	-0.001	0.000
정부	0.003	0.001

자료 : UNCTAD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
 주 : 무역특화지수가 0보다 크면 비교우위이며 0보다 작으면 비교 열위로 해석.

< 한국 서비스 수출의 항목별 현시비교우위(RCA) 지수 >

	'06~'10 평균	'10~'14 평균
가공	1.08	1.00
운송	2.23	2.05
여행	0.51	0.66
건설	7.05	8.38
보험	0.17	0.19
금융	0.22	0.17
통신컴퓨터정보	0.14	0.20
지식재산권사용료	0.44	0.52
기타사업	0.76	0.74
개인문화여가	0.51	0.69
정부	0.97	0.73

자료 : UNCTAD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
 주 : RCA가 1보다 크면 수출경쟁력 우위, 1보다 작으면 수출경쟁력 열위로 판단.

2) 현대경제연구원(2016), "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서비스 수출 실태와 경쟁력", 경제주평, 3월.

④ 경제성장 기여율은 낮고 기업규모는 영세

○ 국내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제조업 대비 낮은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GDP 성장률 기여율도 하락

-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제조업 대비 낮은 성장세를 기록함
 - 지식기반서비스업의 GDP성장률은 2004~2008년 4.7%에서 2010~2014년 3.3%로 제조업(7.1%⇒5.9%) 대비 낮은 성장세를 기록함
- 지식기반서비스업의 GDP성장률 기여율(기여도)은 금융위기 이후 하락함
 - 지식기반서비스업의 GDP성장률 기여율(기여도)은 2004~2008년 26.7%(1.2%p)에서 2010~2014년 24.3%(0.9%p)로 하락
 - 특히, 금융·보험업의 기여율(기여도)은 2004~2008년 6.7%(0.3%p)에서 5.4%(0.2%p)로 하락

<국내 지식기반서비스업의 GDP성장률 및 기여도>

구분	GDP성장률(%)		GDP성장률 기여도(%p)	
	'04~'08	'10~'14	'04~'08	'10~'14
국내총생산(GDP)	4.5	3.7	4.5	3.7
서비스업	3.9	3.3	2.1	1.8
지식기반서비스업	4.7	3.5	1.2	0.9
정보·통신	4.7	4.6	0.2	0.2
사업서비스	5.4	4.3	0.3	0.3
보건·사회복지	5.9	5.8	0.2	0.2
금융·보험	4.9	3.4	0.3	0.2
교육	3.3	0.6	0.2	0.0
문화·기타	3.8	2.0	0.2	0.0
전통서비스업	3.5	3.2	0.9	0.9
제조업	7.1	5.9	1.8	1.6

자료 : 한국은행(국민소득, 기업경영분석); 금융감독원, 통계청, 고용노동부.

주 1) 지식기반서비스업(한국은행 국민계정)은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업, 금융·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2) 전통서비스업(한국은행 국민계정)은 도매 및 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 운수 및 보관업, 부동산 및 임대업, 공공행정 및 국방.

- 국내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사업체당 종업원수는 제조업에 비해 작음
 - 사업체당 종업원수는 2007~2009년 12.5명에서 2011~2014년 11.9명으로 제조업(41.6명⇒42.8명) 대비 작음

-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종업원 1인당 매출액 규모도 제조업보다 작음
 - 종업원 1인당 매출액 규모는 2007~2009년 7,130만원에서 2011~2014년 8,370만원으로 제조업(4억 2,940만원⇒5억 3,540만원) 대비 작음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사업체당 종업원수>

구분	종업원수/사업체 (명)	
	'07~'09	'11~'14
서비스업	4.2	4.4
지식기반서비스업	12.5	11.9
정보·통신	17.5	14.6
금융 및 보험	17.6	17.1
전문,과학및기술	10.1	9.9
사업시설및지원	21.0	19.7
교육	8.3	8.5
보건및사회복지	9.5	10.4
오락·문화	3.1	3.4
전통서비스업	3.1	3.1
제조업	41.6	42.8

자료 : 통계청 자료 이용하여 HRI 추산.
 주 : 전통서비스업 부동산 및 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을 포함함.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종업원 1인당 매출액>

구분	매출액/종업원 (백만원)	
	'07~'09	'11~'14
서비스업	98.3	120.2
지식기반서비스업	71.3	83.7
정보·통신	132.9	168.1
금융 및 보험	-	-
전문,과학및기술	78.4	74.8
사업시설및지원	43.2	52.0
교육	16.1	17.2
보건및사회복지	72.7	77.4
오락·문화	84.3	112.8
전통서비스업	138.1	174.0
제조업	429.4	535.4

자료 : 통계청 자료 이용하여 HRI 추산.
 주 1) 전통서비스업 부동산 및 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을 포함함.
 2) 제조업은 종업원 1인당 출하액.

⑤ 중간재 산업으로 역할 미흡

○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중간재 산업으로의 역할이 미흡함

- 총 중간투입액 대한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중간투입률 비중이 하락하며 제조업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임
 - 총 중간투입액에 대한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중간투입률 비중이 2005년 19.1%에서 2011년 16.8%, 2013년 12.8%로 하락했다
 - 총 중간투입액에 대한 서비스업 투입률은 2005년 35.2%, 2011년 30.9%, 2013년 31.4%를 기록
 - 총 중간투입액에 대한 제조업 투입률은 2005년 56.3%, 2011년 58.5%, 2013년 57.0%를 기록

<국내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중간투입률 추이>

(단위: %)

구분	1995	2000	2005	2010	2011	2013
중간재투입률	54.8	56.7	58.8	63.1	64.6	63.8
서비스투입률	34.4	35.0	35.2	33.0	30.9	31.4
지식기반서비스업	18.9	19.2	19.1	18.1	16.8	12.8
제조업투입률	57.1	55.6	56.3	57.8	58.5	57.0

자료 : 국내 산업연관표 각연도 참고하여 HRI 작성.

- 주 1) 중간투입률=(중간투입액)/(총투입액)×100. 서비스투입률=(서비스업종중간총투입액)/총중간투입액×100. 제조업투입률=(제조업종중간총투입액)/총중간투입액×100.
- 2) 1995, 2000, 2005, 2010년, 2011년 투입률은 생산자가격(2005년 실측표 기준), 2013년은 기초가격(2010년 실측표 기준)임.
- 3) 지식기반서비스업의 투입률은 ‘부동산 및 임대업’이 포함되지 않은 비율임.
- 4) 중간투입률(%), 2000년대 중반은 미국 45.4, 독일 48.7, 일본 46.8. 서비스투입률(%)은 미국 62.2, 독일 56.5, 일본 47.7. 제조업투입률(%)은 미국 30.4, 독일 38.5, 일본 4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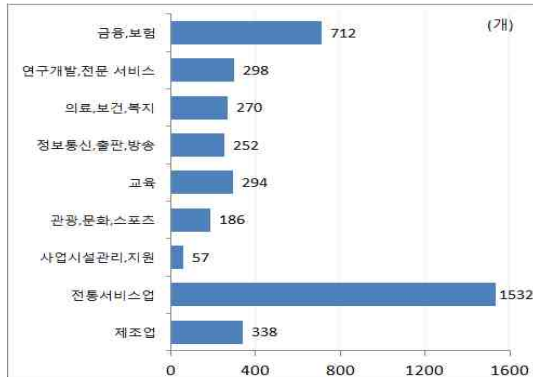
⑥ 상대적으로 규제가 과다

○ 국내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진입 제한 등 경쟁제한적인 규제가 과다하여 산업내 경쟁이 활성화되지 못함

- 전체 서비스산업 규제 중 지식기반서비스산업 규제가 57.5% 차지³⁾
 - 공통규제를 제외할 경우, 제조업에만 적용되는 규제는 338개, 서비스산업은 3,601개로 서비스산업 규제가 제조업의 10배가 넘음
 - 전체 서비스산업 규제 중 지식기반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는 57.5%에 달함
 - 금융·보험업이 712개로 가장 많은 규제를 받고 있으며, 연구개발·전문서비스(298개), 교육(294개), 의료·보건·복지(270개), 정보통신·출판·방송(252개), 관광·문화·스포츠(186개), 사업시설관리·지원(57개) 순임
-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등록규제 중 진입관련 규제는 451개로 제조업 전체 규제수보다 많은 수준임
 -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진입규제는 금융·보험업이 106개로 가장 많고, 연구개발·전문서비스(98개), 의료·보건·복지(75개), 교육(54개), 관광·문화·스포츠(52개), 정보통신·출판·방송(50개), 사업시설관리·지원(16개)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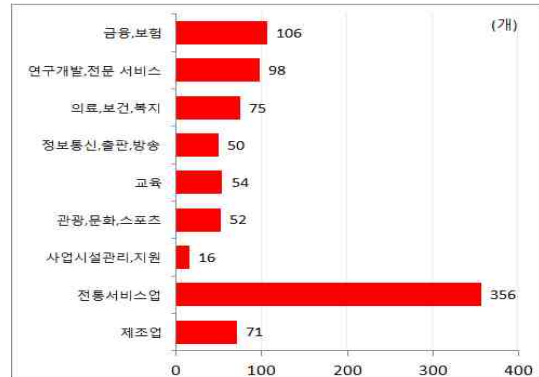
3) 전국경제인연합회(2014), “서비스산업 등록규제수, 제조업의 10배”, 보도자료, 2월.

<지식기반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등록규제 수>



자료 : 전경련 자료 이용하여 HRI 재구성.
 주 : 전통서비스업은 운송,창고업, 공공기관, 부동산, 단체협회, 도소매수출입, 환경산업, 개인가사, 공중위생,요식업을 포함.

<지식기반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진입규제 수>



자료 : 한국생산성본부.
 주 : 진입규제는 사업개시 인허가, 공장법인 설립 관련 규제임.

3. 시사점

첫째,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고용창출력을 더 키워야 함

- 기존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식서비스부문에 대한 세밀한 접근 필요
 - '지식기반서비스 T/F(안)' 설립 등을 통해 윈스톱 지원 서비스 제공 필요
- 해외시장 진출 확대 등 글로벌산업화를 추진할 필요
 - IT, 한류관련 분야 등 유망서비스업종을 중점 육성하여 수출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지식기반서비스업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야 할 것임

둘째,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해야 함

- 연구개발투자 부진이 지식기반서비스 기업들의 저생산성의 주요인이라는 점에서 기업 자체적인 연구개발투자 확대가 시급함
- 정부 차원에서 디자인·설계, 마케팅 등 유망 지식기반서비스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자금 및 조세지원을 확대 필요

셋째,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수요기반 확충 및 수출경쟁력을 높여야 함

- 소득증가, 고령화 등에 따라 수요가 고급화·다양화되는 의료 및 교육서비스업은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욕구 충족에 적극 노력
 - 기업내부의 아웃소싱 모델 개발, 경영컨설팅 등 전문서비스에 대한 아웃소싱 시 조세감면 등의 정부 지원 확대 필요
- 시장개방 확대를 통해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선진화를 도모
 - 다만, 국내외 기업간 경쟁력 격차, 국내기업의 성장잠재력 및 경쟁력 향상 추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개방을 추진

넷째, 영세한 기업규모에 대응하여 전문화·대형화 추진 필요

- 전문화·대형화를 추진하는 업체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하여 산업으로서의 발전을 유도
- 취업자수가 많은 지식기반서비스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다섯째, 전산업 생산에서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중간재 산업 역할 확대 유도

-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분류체계 표준화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양적 및 질적 향상을 바탕으로 중간투입재로서의 가치 및 중간재 산업 역할 확대 유도
- 신업종 등장 등 지식기반서비스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산업변화를 반영한 통계DB 구축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

여섯째, 지식기반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 활성화 제고

- 지식기반서비스업에 대한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 또는 완화하여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및 산업 발전 유도
- 상대적으로 규제비율이 높은 금융·보험, 연구개발·전문 서비스, 의료·보건
 - 복지 부문에 대한 우선적인 규제완화 노력이 필요 **HRI**

임희정 연구위원 (2072-6218, limhj9@hri.co.kr)